



특별행정기관 전담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정부 이관 후 운영비 축소·충원 인력 인건비 지원 중단도, 작년까지 1조원 지방비 투입... 특별법 개정안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로 이관된 7개의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면서 지방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도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기관과 소관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이양됐다.

제주특별법에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 후 정부지원 운영비는 2012년 1869

억원에서 2020년 1119억원으로 연평균 3.2%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1조원에 달하는 지방비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는 중앙특별행정기관의 이양 사무를 반환하거나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해 이양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특별행정기관 예산이 제주계정을 통해서 넘어 왔는데 지원 예산이 2007년 대비 30% 감소했고 특별행정기관의 행정인력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면서 도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각 부처에 어필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약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특별행정기관을 포함할 각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4·3특별법 통과 위해 전력 다할 것”

도의회 4·3특위 협력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일정과 쟁점사항, 향후 대응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2월 임시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유족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에서도 전국 의원 네트워크 등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시 어촌·어항개발에 225억원 투자

어촌뉴딜·소규모어항 정비 포구시설 보수보강도 병행

제주시가 올해 어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어항 개발, 관리사업에 총 사업비 225억원(국비 128억원·도비 97억원)을 투입한다.

시가 올해 추진할 어촌·어항개발 관리 주요 사업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안·어촌혁신거점 기반구축과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소득 창출,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등이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안·어촌 혁신거점 기반 구축은 모두 11개 사업에 208억원이 투입된다. 고내항·세화항·하우목동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비롯 합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어촌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에는 3개 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 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가

중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에 4억9000만원을 비롯 소규모어항 준설 및 보수보강 2억원, 삼양어촌정주어항 보강공사 8억원 등 어항 재정비 관련 총 8개 사업에 16억8000만원이다.

시는 이와관련 실시계획 등 관련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신속히 발주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제주광어 '전문 주치의' 탄생 해양수산연구원 전문의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광어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의(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해 양식 현장에 투입, 지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광어 생산량은 2만3416t, 조수입은 약 2738억원으로 국내 양식광어 생산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공수산질병관리사는 모두 10명으로 도내 359개 양식장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양식장의 수산생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게 된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 진료 ▷전염병 예방 ▷방역관리 ▷수산물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수산질병관리사가 매일 수행하는 지역별 예방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one-stop' 진료 체계를 구축해 어업인에게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제주광어의 질병 예방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어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고품질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제주광어 명품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오영희 의원 결핵 관리 정책간담회 개최

치료 전문기관 조례 의견 청취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결핵 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오 의원은 “결핵은 제3급 감염병으로 제주는 전국에서 6번째로 결핵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런 상황을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핵 치료 전문기관 설

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을 비롯해 장경진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차장, 정인보도 방역총괄과장, 박재성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장, 대한결핵협회 송하만 본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또 제주대병원 임봉실 결핵전담간호사가 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점과 결핵전담간호사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상민기자

제주여성 영상제작 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사업으로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주여성 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근·현대를 살아온 평범한 제

주여성의 삶을 제주어·한국어로 된 영상자료로 기록해 각종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3월 2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직접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강다혜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소득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Y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